

환아 간병·일자리 창출·사회적경제 강화 '일석삼조'

광산구 '어린이 반값 간병' 새 도전 눈길

6월 14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아동보호요양사 양성도 앞장

광산구에 사는 주부 김경은씨는 지난 1월 폐렴으로 입원한 19개월 딸을 간병하다 자신도 감염돼 같은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됐다.

고열로 딸 간병은커녕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김씨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본 광고가 떠올라 아동보호요양사 서비스를 신청했다.

김씨는 "폐렴으로 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요양사의 간병으로 크게 도움받았다"며 "출산지원금 등 양육복지가 많지만 이 제도만큼 절실한 제도가 없었다.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요양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아의 간병 서비스로, 전문 교육을 받은 병원 아동보호사가 환아를 돌봐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보호요양사제도는 일과 기사 등 이중부담을 짚어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유용한데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주시 광산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보호요양사 '반값이용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나



광주 광산구는 어린이전문병원 5곳과 대학, 기업, 공익재단 등과 병원아동보호사 육성을 위한 짝꿍 협약식을 맺었다. <광산구 제공>

서기로 했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회사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SNS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주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들이 취지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병원과 함께 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병원아동보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엄마손길'도 설립했다.

현재 교육을 수료한 병원아동보호사는 모두 32명.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아동 192명을 1300시간 동안 돌봤다.

이 제도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보호사에 게도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 광산구민은 평일 낮 기준 1시간 기준 1만2000원 중 6000원만 부담하면 아동보호요양사의 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광산구에서 지원한다.

병원아동보호사인 박향순씨는 "공익성도 충족하고 직업으로도 만족도가 높는데다 가족 모두의 지지까지 받아 일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노동을 존중

받으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6개 회사에 총 95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 공익 충족 등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효과를 낳는 새로운 경제"라며 "강자독식, 양극화처럼 많은 적폐를 양산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체제로 성장하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역에서부터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기자 노트

지역이 만드는 변화 대선주자들도 주목해야



최승렬 사회2부 기자

'4차 산업혁명', '학제 개편', '공정환 시장질서 확립' 등 5·9 장미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는 굵직한 정책들이 절대 다수다.

이를 두고 시대의 변화를 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이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는 최일선인 지역과 마을을 이해하고, 시민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 간병영역을 발굴해 일자리 확대까지 해결한 광산구 사례는 대선 후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지역에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다. 광산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러온 '연쇄 반응'이 좋은 예다. 민형배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6기 광산구는 지난 2011년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공공부문 최초로 단행했고, 다른 공공기관의 반응을 불러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광산구가 한 해 전 제정한 규칙과 거의 흡사해 눈길을 끌었다.

광산구의 민관연대 복지 모델도 마찬가지 경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시·군·구에 하나씩 두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까지 확장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이 제도의 배경에는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운동'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4월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모아 실시한 교육에서 동 단위까지 뿌리 내린 광산구의 민관공동 복지망 성과를 중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력, 고도의 집중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자치단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는 꼭 광산구가 아니더라도 서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 전면 실시 22년을 맞는 2017년. 이제 대한민국은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 시민과 시민이 연대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고 키워내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놀이동산 대신 '정책 소풍' 간 학생들

학교·지역 함께한 민주시민 교육 참신

광주 살레시오고 70여명 공익센터·야호센터 등 방문 재미와 공부 동시에 만끽

광주 살레시오고 1학년 학생들이 특별한 소풍을 다녀왔다.

흔한 놀이동산 대신 '정책'을 소풍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살레시오고 1학년생 70여명은 지난 20일 하루 동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야호센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고교생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소풍 주제를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길을 찾아서'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교생들은 방문지에서 단순한 방문객이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직접 활동에 나섰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 지원 사업을 윤난실 센터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도 했다.

이들이 가장 인상 깊은 소풍 장소로 꼽은 곳은 야호센터였다. "재미와 공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고교생들의 말이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포켓볼, 전자오락을 비롯한 세월오월 조각그림 그리기, 실내 손 축구 게임 등을 즐겼다. 친구들과 왁자지껄 어울린 이들의 모습은 천상 '사춘기 고교생'의 모습이었다.

반면 공동체를 학습하는 모습은 진지했다. 엄마를 잃은 소년의 성장을 다룬 그림책 '무릎따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자치가 진보다'를 주제로 지역 고교생들에게 시민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을, 68조각으로 나눈 흥성담화백의 '세월오월'을 따라 그린 뒤 맞춰 하나로 만드는 순서에서는 희망을 찾았다.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5·18 등의 주제를 친구의 몫으로 맞추는 스피드 퀴즈에서는 정치와 참여의 중요성도 학습했다. 스피드 퀴즈가 제일 재밌었다는 이성현군은 "교실에서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이어서 마음에 깊게 와 닿는다"며 "나와 이웃의 삶을 바꾸는 자치와 사회를 더 좋게 이끄는 참여의 중요성을 알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치가 진보다'를 주제로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주먹밥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민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시민'을 강조



박희영 대한독서문화협회이사가 최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한 살레시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하고 있다.

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자 법칙이면서 모든 억압과 제도적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치"리면서 "국가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 아닌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꾸리는 시민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정준군은 "놀이 공원이나 유흥지가 아닌 장소로 소풍을 나

온 것은 처음인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학생도 시민이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소풍은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치조직인 대동회 회의에 참여해 토론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65 since 1952

氣의 고장 영암

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일등합니다

구입문의
품목별 생산농협 및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
TEL : (061)470-2378

- 무화과/팜/무화과
심호농협 061-464-6010
- 허벅고구마 밭고구마
서명농협 061-472-5011
- 영암배
신복농협 061-472-9997
- 영암멜론
영암농협 061-471-6477
- 로컬푸드
영암농협 061-470-8888
- 영암매력한우
영암농협 061-473-3207
- 명품대봉감/곶감
금정농협 061-472-1777
- 달마지쌀 골드
영암군농협통합RFC 061-471-0215